

발간등록번호

72-6420000-000053-10



승인번호
제21104호

2010년 기준 시군단위 지역내총생산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by Si · Gun



강원도
GANGWON PROVINCE

이용자를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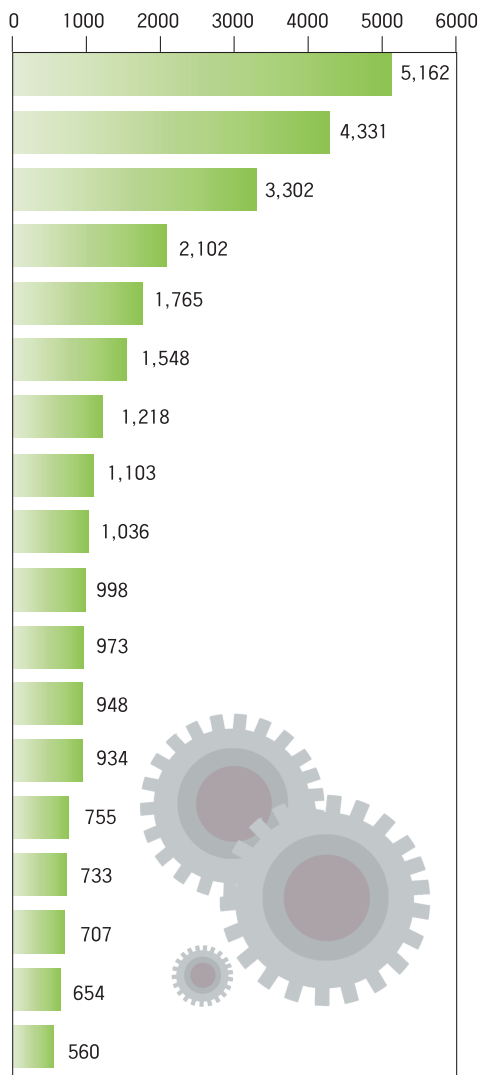
1. 『시·군단위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은 1년 동안 (2010년) 각 시·군별로 생산량, 단가, 물가 등의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해당 시·군의 총생산액을 추계한 자료임.
2. 지역내총생산(GRDP)은 생산측면의 부가가치를 파악한 것으로 각 시군의 경제 활동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임.
3. 강원도 『시군단위 지역내총생산』은 통계청 『시도별 지역내총생산』의 추계시 이용되는 자료와 일부 상이하나, 자료의 일관성을 위해 도 총생산 규모를 일치시켰음.
4. 업종별 추계시 시군별 기초자료를 이용하나, 시군별 기초자료는 없고 도 총괄 자료만 있는 경우는 그 기초자료의 특성을 가능한 잘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하여 추계하였음.
5. 「1인당 생산수준」은 『시군단위 지역내총생산』을 해당 시군의 인구수로 나누어 사용하면 되나 시군별 소득 및 생활환경수준 등과 직접 비교하기에는 부적합함.
6. 통계표상 수치는 반올림한 것이므로 세목의 합계가 총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기초자료의 수정에 따라 이전에 발간된 보고서의 금액이 다소 수정될 수 있음.
7. 「-」 표시는 해당 숫자 없음.
8. 수록된 자료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강원도청 법무통계담당관실 통계 분석팀(☎ 033-249-24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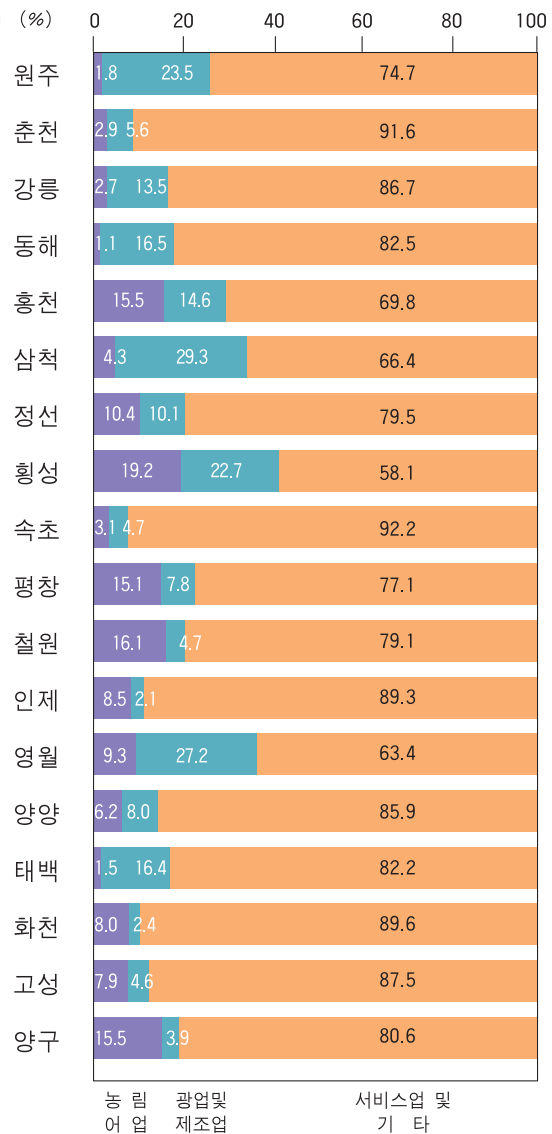
이용자를 위하여	1
 I. 2010년 지역내총생산 추계결과 분석	7
1. 지역내총생산 규모(당해년 가격)	8
2. 지역내총생산 성장률(2005년 기준년 가격)	9
3. 시군별 경제활동별 구조	10
 II. 통 계 표	13
1. 지역내총생산 규모 (당해년 가격)	14
2. 연쇄지수 및 경제성장률	16
3. 시군별 지역내총생산 (당해년 가격)	18
4. 경제활동별 총부가가치 (당해년 가격)	58
5. 경제활동별 총부가가치 (2005년 기준년 가격)	96
6. 경제활동별 지역내 총부가가치와 요소소득	134
7. 시군별 지역내총생산 주요지표	286
 III. 지역내총생산의 개념 및 용어해설	305
 IV. 지역내총생산 추계방법	319

지역내총생산의 시군별 구성비 및 산업구조

시군별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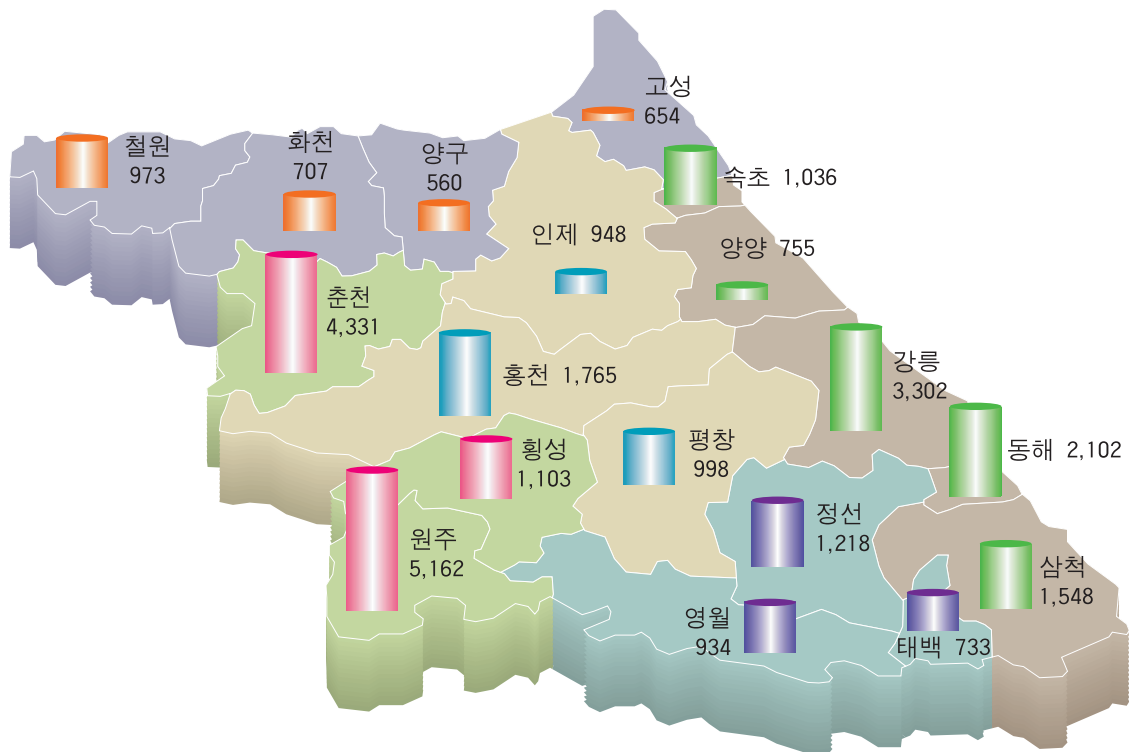


시군별 산업구조



지역내총생산 규모

(단위 : 1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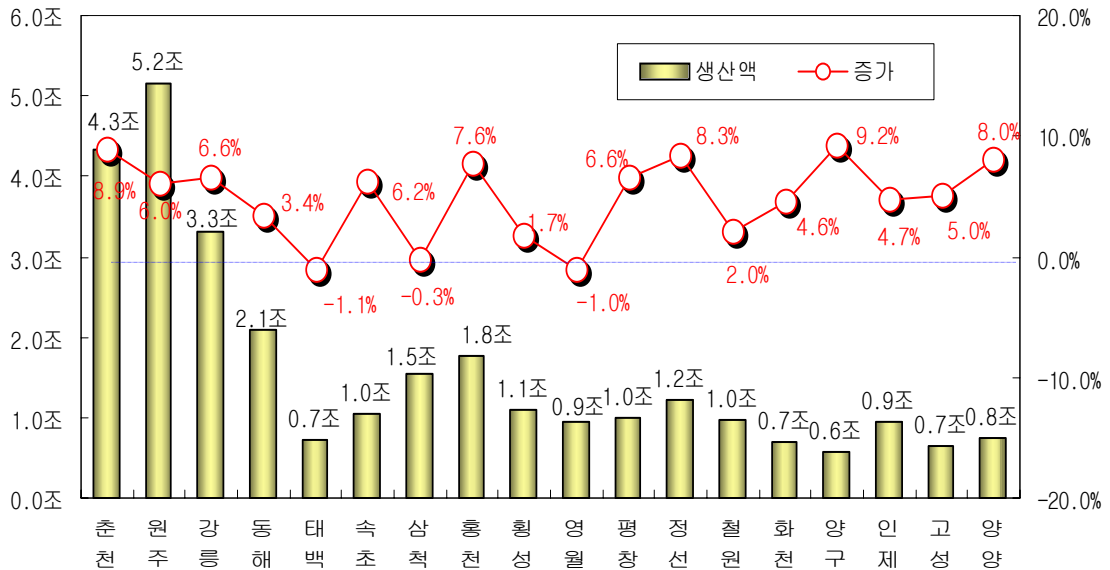


I . 2010년 지역내총생산 추계결과 분석

1. 지역내총생산 규모 (당해년가격)

- 2010년도 18개 시군의 지역내총생산은 28조8,289억원으로 2009년에 비해 1조 4,805억원(5.4%) 증가.
 - 7개 시지역의 총생산은 18조2,152억원으로 도 전체의 63.2%, 11개 군지역 총생산은 10조6,137억원으로 36.8%를 차지
- 시군별로는 원주, 춘천, 강릉 등 3개 시의 생산액이 도 총생산의 44.4%를 차지
 - 상위 3개 지역 : 원주(17.9%), 춘천(15.0%), 강릉(11.5%)
 - 하위 3개 지역 : 양구(1.9%), 고성(2.3%), 화천(2.5%)
- 총생산 규모가 증가한 지역은 양구, 춘천, 원주 등 15개 시군이며 3개 시군은 감소
 - 증가지역 : 양구(9.2%), 춘천(8.9%), 정선(8.3%), 홍천(7.6%), 강릉(6.6%) 등
 - 감소지역 : 태백(△1.1%), 영월(△1.0%), 삼척(△0.3%)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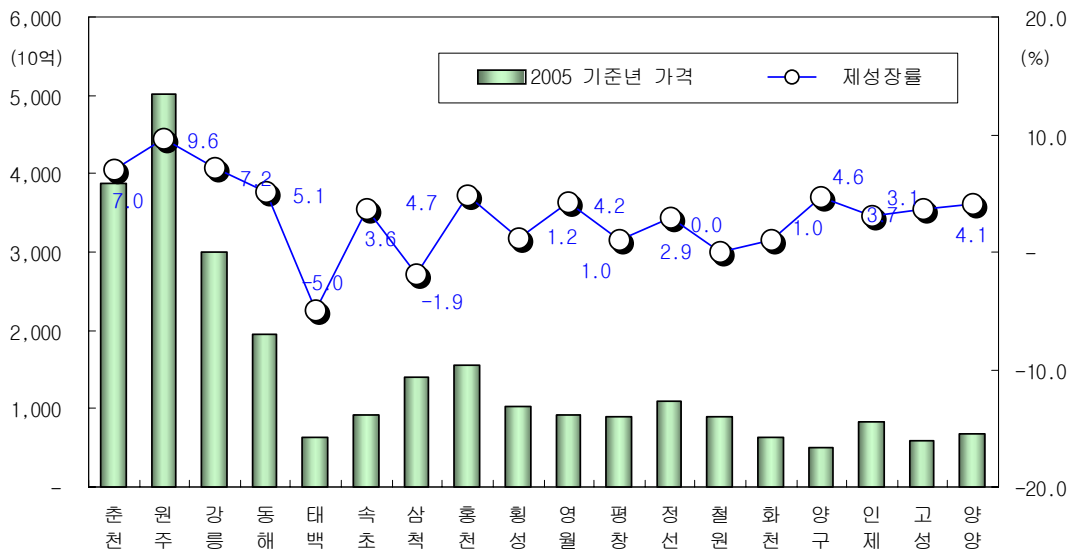
시군별 지역내총생산 규모 (당해년가격)



2. 지역내총생산 성장률 (2005년 기준년가격)

- 2005년 기준년 가격으로 평가한 시군의 지역내총생산액은 26조4,311억원이며, 시군 전체 경제성장률은 4.9%로 전년도($\Delta 0.7\%$)에 비해 성장률 증가.
- 시군별로는 제조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의 업종에서 호조를 보인 원주, 강릉, 춘천의 성장률이 높았고, 태백, 삼척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의 부진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냄.
 - 성장률이 높은 지역 : 원주(9.6%), 강릉(7.2%), 춘천(7.0%), 동해(5.1%)
 - 성장률이 낮은 지역 : 태백($\Delta 5.0\%$), 삼척($\Delta 1.9\%$)
- 高 성장 시군 주요 증가 업종
 - 원주 : 제조업(26.1%), 운수업(13.2%), 사업서비스업(9.1%)
 - 강릉 : 제조업(58.2%), 운수업(18.1%), 정보 및 통신업(11.1%)
 - 춘천 : 제조업(30.3%), 정보통신업(27.2%), 사업서비스업(18.6%)

시군별 지역내총생산 규모(기준년가격) 및 경제성장률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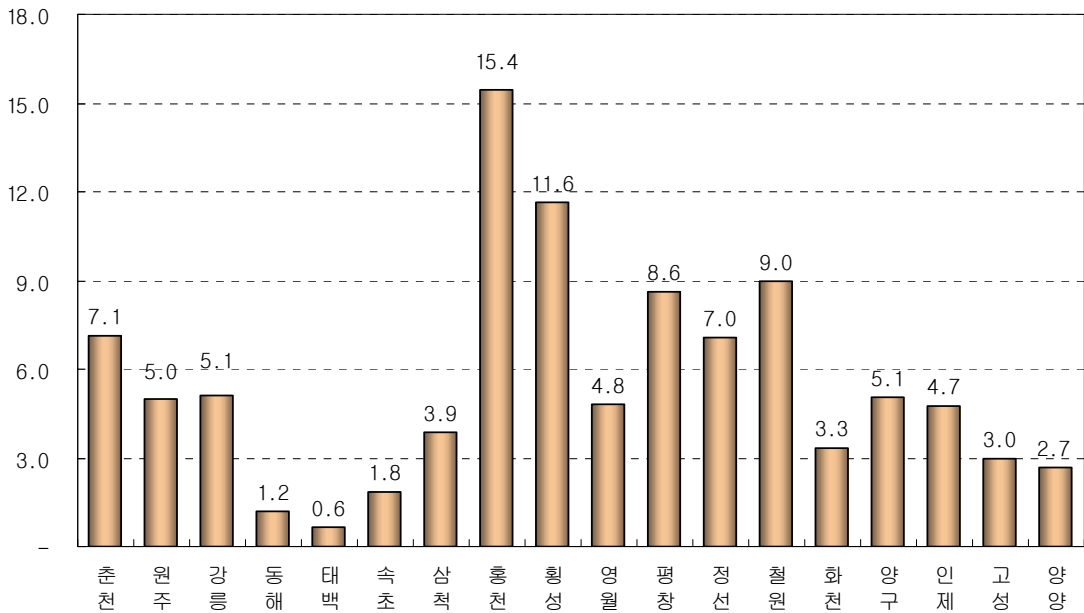
주1) 연쇄지수에 의해 작성된 성장률이며, 지수 기준년은 2005년임

3. 시군별 경제활동별 구조

(1) 농림어업

- 농림어업 총부가가치의 시군별 비중을 보면 홍천(15.4%), 횡성(11.6%), 철원(9.0%), 평창(8.6%), 정선(7.0%), 영월(4.8%), 원주(5.0%), 강릉(5.1%), 양구(5.1%), 인제(4.7%), 춘천(7.1%), 태백(0.6%), 속초(1.8%), 삼척(3.9%), 화천(3.3%), 양양(2.7%), 고성(3.0%), 동해(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농림어업의 시군별 구성비가 증가한 지역은 정선(2.0%p), 영월(1.2%p) 등 8개 시군이며, 횡성(△1.5%p), 철원(△1.0%p) 등 10개 시군은 구성비가 감소함.
 - 정선은 작물재배업과 임업, 영월은 작물재배업과 축산업 부문 생산이 증가했고, 횡성은 임업, 철원은 작물재배업 부문의 부진으로 구성비가 감소함.

농림어업 시군별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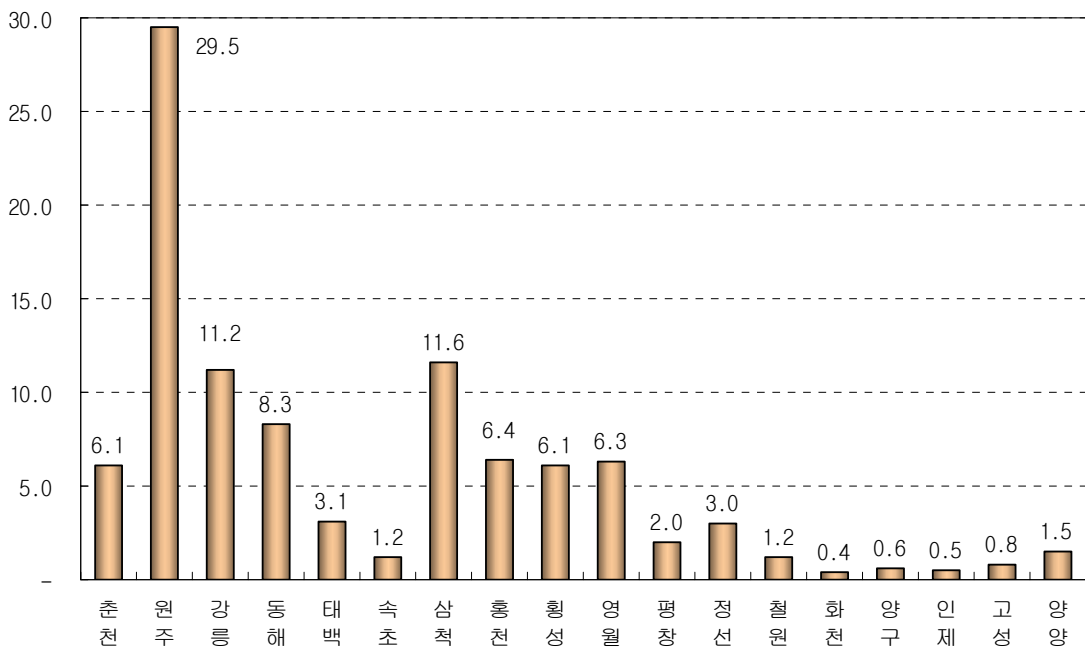
- 지역내에서 산업별 농림어업 구성비 변화를 보면, 정선과 영월은 농림어업 비중이 확대되었고 고성과 횡성은 비중이 축소되었음

	2009년		2010년	증가		2008년		2009년	감소
· 정선	7.1%	→	10.4%	3.3%p	· 고성	8.6%	→	7.9%	△0.7%p
· 영월	6.2%	→	9.3%	3.1%p	· 횡성	19.7%	→	19.2%	△0.5%p

(2) 광업 및 제조업

- 광업 및 제조업 부문에서 각 시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원주(29.5%), 삼척(11.6%), 강릉(11.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광업 및 제조업 부문의 전년 대비 시군별 구성비 증감을 보면,
 - 구성비 증가 3개 지역 : 원주(3.1%p), 강릉(2.3%p), 속초(0.5%p)
 - 구성비 감소 3개 지역 : 삼척(△3.3%p), 홍천(△1.5%), 동해(△0.7%p)

광업 및 제조업 시군별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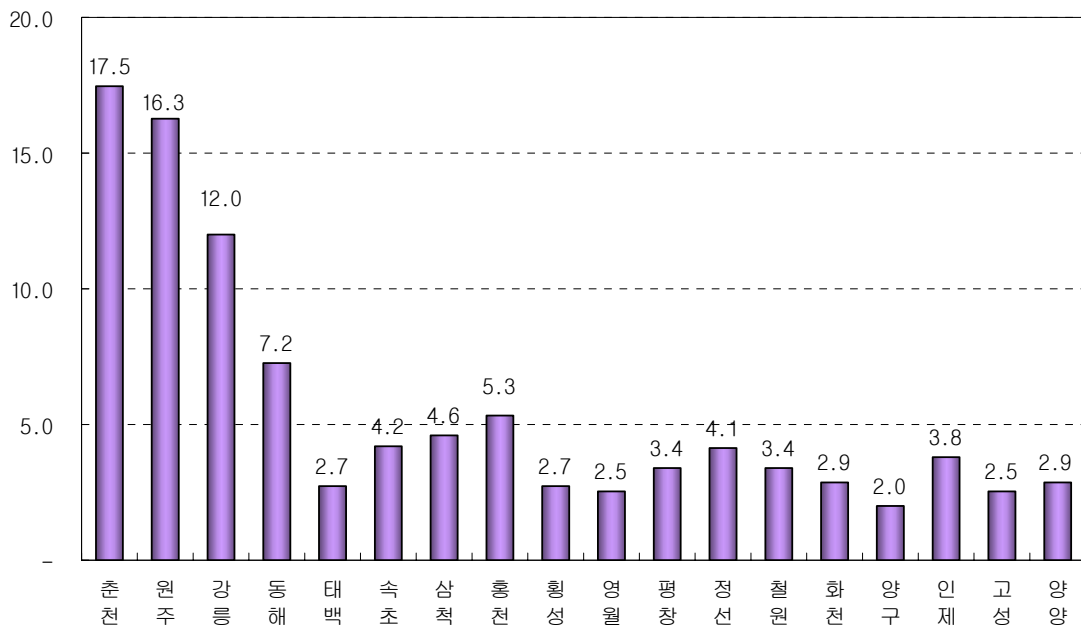


- 도 전체 산업에서 광업·제조업 부문의 구성비는 2009년 14.5%에서 2010년 13.9%로 △0.6%p가 감소
- 지역내에서 광업·제조업 생산비중이 큰 시군은 삼척(29.3%), 영월(27.2%), 원주(23.5%), 횡성(22.7), 동해(16.5%) 등이며,
- 인제(2.1%), 화천(2.4%), 양구(3.9%), 고성(4.6%) 등은 지역내에서 광업·제조업 비중이 적은 지역임.

(3) 서비스업 및 기타부문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을 제외한 부문)

- 2010년도 도내 총부가가치 중 서비스업 및 기타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대비 0.2%p가 증가한 80.0%임.
- 서비스업 및 기타부문의 생산액 중 각 시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춘천(17.5%), 원주(16.3%), 강릉(1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구성비 증가 3개 시군 : 춘천(0.5%p), 홍천(0.4%p), 삼척(0.1%p)
 - 구성비 감소 3개 시군 : 원주(Δ 0.2%p), 영월(Δ 0.2%p), 삼척(Δ 0.1%p)

서비스업 및 기타부문 시군별 구성비(%)



- 시군의 산업별 구성비중 서비스업 및 기타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지역은 속초(92.2%), 춘천(91.6%), 화천(89.6%) 등의 순이며,
 - 횡성(58.1%), 영월(63.4%), 삼척(66.4%)은 서비스업 및 기타부문의 비중이 낮은 지역임.